

## II

# 중소기업 보험시장 현황과 이슈

## 1. 기업성 보험의 정의와 현황

### 가. 기업성 보험의 정의

기업은 사업 활동과 관련된 리스크를 전가하기 위해 다양한 보험상품 및 공제상품을 가입한다. 이렇게 사업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손실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을 기업성 보험(Commercial insurance)이라고 한다.<sup>3)</sup>

기업성 보험은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의 한 영역으로 인식된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기업성 보험이란 용어도 그러하다. 국내 보험업을 규율하는 기본 법령인 보험업법은 보험종목을 정의할 뿐 기업성 보험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기업성 보험이란 용어는 보험업법의 하위 규정인 행정규칙 중 보험업감독규정에서 등장한다. 이 개념은 보험업법상 보호 대상인 일반보험계약자와 구별되는 전문보험계약자를 정의하는 데 사용된다.<sup>4)</sup>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sup>5)</sup>에 기업성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포함된다. 여기서 기업성 보험은 일반손해보험 중 가계성 일반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것을 의미한다.<sup>6)</sup> 가계성 보험은 개인 또는 가계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업성 보험은 리스크의 거대성 및 개별성, 보험자와 계약자 간 대등한 계약 관계라는 특징을 지닌다. 기업성 보험의 보장 위험은 거대성 및 개별성을 가지고 있어 기업성 물건에 대해 비통계요율 적용을 허용하는 등 특수성을 인정한다.<sup>7)</sup> 다음으로 기업성 보험

3) Investopedia website(2023), "What Is Commercial Insurance?"를 참조함. 기업성 보험은 Commercial insurance 이외에 Business insurance, Commercial line이라고도 불림

4)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5) 전문보험계약자는 국가, 한국은행, 민간 또는 공적 금융기관, 주관상장법인, 지자체,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기업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등으로 구성됨

6)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정의)

7) 보험업감독규정에서 비통계요율 사용 가능(제7-73조), 비통계요율 사용 시 신상품 출시 관련 사전 신고기준 면제

의 계약자는 보험회사와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할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sup>8)</sup>의 예외를 인정하고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회사에 부여된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sup>9)</sup>

그렇다면, 기업성 보험은 일반손해보험<sup>10)</sup> 보험종목 중 어떤 것을 의미할까? 일반손해보험 보험종목은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 보험업감독규정에 다양하게 정의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 중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4 <부표 1>의 보험종목 분류를 기준으로 기업성 보험을 정의한다.<sup>11)</sup> <표 II-1>는 화재보험, 해상보험, 기술보험,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이하 ‘근재보험’이라 함), 책임보험, 상해보험, 권리보험, 기타보험 중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기업성 보험을 정리한 것이다.<sup>12)</sup>

---

(제7-48조), 비통계요율 사용 시 기초서류에 보험요율 기재 면제(제7-64조) 등이 규정되어 있음

- 8) 상법 제663조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 금지) 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9) 보험업감독규정에서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계약관리내용(년1회) 제공할 의무면제(규정 제7-45조), 상품설명서, 상품요약서, 기초서류 인터넷 공시의무 면제(규정 제7-45조), 약관이해도 평가 제외(규정 제7-82조) 등이 규정됨. 다만, 기업성 보험을 가입하는 전문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자 의무 면제가 상황에 따라 작용되지 않은 경우도 존재함. (예를 들어) 해상보험에서 중소계약자에 대하여 보험자의 설명의무를 요구하는 판례도 있음
- 10) 보험업법에서는 손해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보험업감독규정 및 실무에서는 일반손해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일반손해보험의 개념은 손해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보험종목 중 장기손해보험과 구별하기 위한 것임. 장기손해보험은 손해보험회사가 개발하여 판매하는 보험상품 중 보험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의미함. 보장하는 리스크 종류에 따라 장기인보험(질병보험, 상해보험, 간병보험), 장기재물보험으로 구분하기도 함
- 11) 이 분류 기준은 손해보험회사가 금융감독당국에 제출하는 손해보험 업무보고서의 사업실적표(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지 제26호 손해보험업무보고서 AI059 사업실적표)에서 사용하는 보험종목 구분과 일치함
- 12) 다만, 서울 편익상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4 <부표 1>의 일반손해보험 보험종목 중 보증보험을 제외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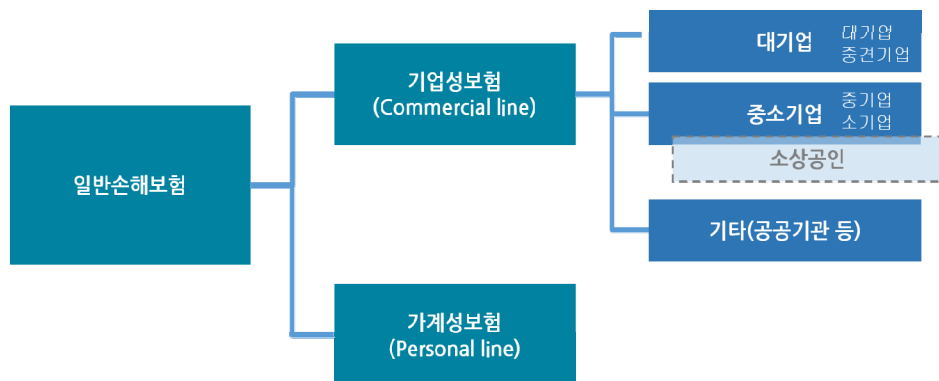
〈표 II-1〉 기업성 일반손해보험의 종류

구분		내용
화재 보험	일반화재	주택이나 공장을 제외한 일반 건물 및 그 수용 동산의 화재 보장
	공장화재	공장 건물 및 그 수용 동산의 화재 보장
해상 보험	선박	선박에 대한 손해를 보장
	적하	화물의 해상운송 위험을 보장
	운송	육상 및 내륙 운송 화물의 위험 보장
	항공	항공기 관련 손해 보장, 손해배상책임 보장
기술 보험	건설	건설공사 중 공사 목적물에 생긴 손해 및 손해배상책임 보장
	조립	조립 공사 중 조립 목적물에 생긴 손해 및 손해배상책임 보장
	기계	기계에 대한 손해 보장
	전자기기	전자기기에 대한 손해 및 자료복구 비용 등을 보장
근로자 재해보상 보험	국내	국내 근로자에게 생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재해보상책임 보장 및 법률상의 보상책임을 초과하여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는 민법상의 사용자배상책임을 보장
	해외	해외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해보상책임 보장 및 사용자배상책임 보장
	선원	선원법상 재해보상책임 및 사용자배상책임 보장
	직업훈련생	직업훈련생에 대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상의 재해보상책임 보장 및 사용자배상책임 보장
책임 보험	일반배상	시설 및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 보장
	생산물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또는 취급한 재물이나 작업 결과에 기인한 배상책임 손해 보장, 생산물의 결함에 의한 사고로 배상책임이 발생되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생산물 회수비용 보장, 생산물 자체의 하자나 결함을 보상
	전문직업인	전문직업인이 사람의 신체에 관한 전문직업상의 행위로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 보장, 전문직업인이 전문직업상의 행위로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 보장
상해 보험	단체상해	단체 또는 기업 구성원 대상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의 손해 보장
종합 보험	기업성	기업의 재물손해, 손해배상책임 및 구성원의 신체 손해 보장 중 두가지 이상의 손해를 보장
기타		유리보험, 원자력보험, 비용보험,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풍수해보험, 상금보상보험, 기타

주: 보험종목의 종류 중 기업성 보험 중심으로 편집하였고, 보증보험, 재보험 등을 제외함  
 자료: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4] 표준사업방법서 제5-13조 관련 (부표 1)

여기서 일반손해보험이란 보험료 산출 시에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고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된 손해보험을 말한다. 일반손해보험은 고객이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가계성 보험과 기업성 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업성 보험은 다시 고객군을 기준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로 세분화될 수 있다. 이를 정리한 그림이 <그림 II-1> 일반손해보험의 고객군별 분류이다.

<그림 II-1> 일반손해보험의 고객군별 분류



그런데 국내 기업들은 앞에서 나열한 기업성 일반손해보험의 보험종목 이외의 보험종목에도 가입한다. 장기재물보험, 장기단체상해보험, 생명보험, 보증보험, 자동차보험 등이 그것이다. 본 연구는 기업성 보험의 연구 범위에 일반손해보험 이외에 장기재물보험과 장기단체상해보험, 신용보험을 포함하고, 보증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을 제외하고자 한다.

국내 기업이 가입하는 보험 중 다른 국가에서 거의 발견되지 않는 보험종목으로 장기재물보험과 장기단체상해보험이 있다. 장기보험은 일반적으로 보험기간이 3년 이상인 보험을 의미한다. 일반손해보험이 보험료 산출 시에 할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된 것과 비교하여 장기보험은 보험료 산출 시에 할인율을 적용하고, 순보험료에 위험보험료뿐만 아니라 만기환급금 등을 위한 적립보험료를 포함하는 특성이 있다.

먼저, 장기재물보험은 화재손해와 배상책임손해를 보장하면서 보험 만기 시 만기환급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장기재물보험은 국내에서 손해보험회사 및 손해공제기관이 판매한다. 생명보험회사는 장기재물보험을 판매할 수 없다. 장기재물보험은 기업성 보험과 가

계성 보험으로 구분되는데, 가계성 보험은 주택화재와 일상생활배상책임을 주된 보장 내용으로 하고, 기업성 보험은 공장 또는 일반 건물의 화재손해와 관련 배상책임손해를 주된 보장 내용으로 한다. 장기재물보험은 만기환급금을 위한 적립보험료가 부가되어 순수 보장형 화재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싸다. 기업성 장기재물보험은 대표적인 기업성 일반손해보험인 화재보험 및 기업성 종합보험의 대체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기재물보험을 국내 기업의 리스크관리 수단 중 하나로 보고 연구 범위에 포함했다.

또 다른 기업성 장기보험으로 장기단체상해보험이 있다. 이러한 유형의 단체상해보험은 주로 종업원의 재해 또는 상해<sup>13)</sup>에 따른 사망이나 장해에 대해 보험가입금액에서 정한 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함)에 비해 업무 외의 사유에 따른 종업원의 사고도 보장한다. 산재보험의 보험금에 추가로 보험금을 중복 지급하여 종업원의 인적 리스크 대응을 강화한다. 또한 이 보험은 상품 설계에 따라 입원, 수술, 통원을 보장하거나, 질병 진단 급부를 보장하기도 한다. 이런 유형의 단체상해보험은 손해보험회사의 장기손해보험으로 판매되기도 하고, 생명보험회사 상해보험으로 판매되기도 한다. 이 상품은 만기환급금을 위한 적립보험료가 부가되어 있어 순수보장형 보험보다 보험료 수준이 높다. 장기단체상해보험은 기업 입장에서 일반손해보험의 보험종목에 속하는 단체상해보험의 대체재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연구 범위에 포함했다.

다음으로 기업성 보험에 보증보험과 신용보험이 포함될 수 있는지 살펴보자.

기업은 거래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보증에 가입하기도 한다. 계약이행보증이나 금융성보증(대출관련 보증)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보증상품은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경우 보증보험, 공제기관이 제공하는 경우 보증공제라고 불리고, 은행, 증권 등에서 제공할 때는 보증이라고 한다. 보증, 보증공제, 보증보험은 채권자를 위해 채무자가 가입하는데 그 본질은 채권자-채무자-보증인 3자 간에 이루어지는 민법상 법인보증계약이다.<sup>14)</sup> 따라서 보증보험 또는 보증공제는 그 이름에도 불구하고 보험 또는 손해공제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국내 보증보험회사는 보증보험 이외에 신용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신용보험은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이 구매자의 지급불능이나 이행지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스스로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되어 가입하는 보험이다.<sup>15)</sup> 신용보험은 보

13) 손해보험회사는 상해를 보장하고, 생명보험회사는 재해를 보장함

14) 조재린 외(2021), 보증과 보증보험의 성격에 관해서 p.104를 참조하기 바람

15) 조재린 외(2021), pp.104~105

증보험과 달리 상품 및 서비스 제공 기업이 스스로 가입 여부를 결정한다. 이런 의미에서 신용보험은 보증과 달리 이론적으로 손해보험의 고유영역에 속한다.<sup>16)</sup> 국내에서 신용보험은 SGI서울보증보험, 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판매하고 있다. 신용보험 중 단기수출보험의 경우 국내 손해보험회사도 판매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업성 보험에 신용보험을 포함하고, 보증보험을 제외한다.

기업은 생명보험을 가입하기도 한다. 종업원이나 경영자를 위해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존재한다.<sup>17)</sup> 이러한 생명보험가입은 기업의 리스크관리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생명보험을 기업성 보험의 범위에서 제외한다.<sup>18)</sup>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자동차보험을 제외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사실 대부분 기업들이 자동차보험을 가입한다. 영업용 자동차를 가진 운송업체의 경우 자동차보험료는 핵심 원가 요소이다. 그렇지 않은 기업도 업무용 자동차<sup>19)</sup>로 인해 자동차보험료가 원가 요소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자동차보험을 제외하는 것은 다른 기업성 보험종목과 함께 다루기에는 단일 보험종목으로 너무 비중이 큰 종목이기 때문이다. 기업성 자동차보험은 별도의 주제로 분석이 필요한 종목이다. 또한,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운송업체의 관련 법령에 따라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다.<sup>20)</sup>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보장 공백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의무보험 중심의 자동차보험을 제외하는 것이 연구 목적에 더 부합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검토를 종합한 것이 <표 II-2>이다. 본 연구는 기업성 보험의 범위를 기업성 일반손해보험, 장기재물보험, 장기단체상해보험, 신용보험으로 한정했다. 보증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은 연구범위에서 제외했다.

---

16) 국내 보험업법에서는 신용보험을 보증보험으로 분류하여 보증보험회사에만 허용함. 다만, 단기수출보험에 한해 2016년부터 손해보험회사에 허용됨

17) 기업의 경영자를 포함한 핵심 인력 사망, 장애 등에 따른 기업 피해를 담보하기 위한 생명보험은 Keyman insurance라 불림. 또한 기업은 저축성보험인 양로보험, 생존보험, 연금보험을 가입하기도 함

18) 실제 설문조사에서 기업들이 설문조사 문항 이외에 기타 보험으로 응답한 보험은 대부분 경영자종신보험이었음

19) 다만, 업무용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 렌트카를 사용하는 경우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음

20) 임의보험의 경우에도 대다수가 가입하고 있음

〈표 II-2〉 연구 대상 기업성 보험의 범위

포함	제외
기업성 일반손해보험 장기재물보험 장기단체상해보험 신용보험	보증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리스크 전가 수단을 제공하는 공급기관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이외에도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표 II-3〉은 기업성 보험 공급기관 현황을 보여준다.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한국해운조합,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등 업종별 공제조합이 손해공제상품을 판매하는 기관이다.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중소기업중앙회 등도 손해공제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할 수 있다. 공공기관 중에서도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목적으로 민영보험회사에 제공하기 힘든 리스크 전가 수단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용보험을 공급하는 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이 대표적이다.

〈표 II-3〉 기업성 보험 공급기관 현황

구분	공급기관	판매상품
보험회사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회사	일반손해보험 장기재물보험 장기단체상해보험 단기수출보험(신용보험)
	보험업법에 따른 보증보험회사	신용보험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회사	장기단체상해보험
공공기관	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	신용보험
공제조합 및 유사기관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손해공제 <sup>1)</sup> 장기손해공제 정책성보험 <sup>2)</sup>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정보통신공제조합, 소방공제조합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해운조합,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조선공제	선주상호책임보험(Protection & Indemnity, P&I), 선박공제, 여객공제
	한국LPG가스판매중앙회, 한국LPG산업협회공제, 어린이집안전공제,	배상책임공제, 상해공제

주: 1) 화재공제, 배상책임공제, 특종공제, 근로자재해공제, 건설공사공제, 단체상해공제 등 다양한 상품이 존재함

2) 어선재해보장보험, 어선원재해보장보험, 양식재해보험 등이 있음

자료: 송윤아·한성원(2020)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작성함

## 나. 국내 기업성 보험의 낮은 시장 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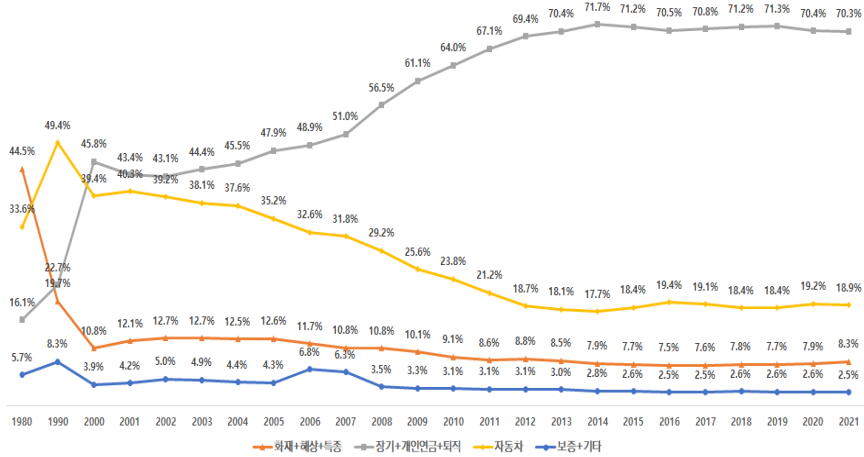
리스크관리는 기업의 가치 극대화 과정에서 필수 불가결한 활동의 하나이다. S&P, 무디스 등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의 기업 평가에서 리스크관리시스템의 평가는 핵심 평가 기준의 하나로 자리를 잡았다. 리스크 식별, 통제, 재무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도 대규모 손실리스크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성 보험은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리스크 전가 수단이다. 기업 파산 리스크의 감소 나아가 이와 관련된 재원 조달 비용 측면에서도 보험은 매우 효과적인 파산 리스크 및 파산 비용 감소 수단이다. 또한 기업성 보험은 사전적인 위태(Hazard) 감시, 사후적인 손실보상 및 복구를 보험회사는 리스크관리 전문가를 통해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해외 주요국에서 기업성 보험은 가계성 보험과 함께 보험시장의 양대 축을 이루고, 국가에 따라서는 기업성 보험의 비중이 더 큰 경우도 있다. 기업 리스크관리와 사후적 회복탄력성 측면에서 기업성 보험은 주요국 경제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과 비교할 때 국내 보험산업은 생명보험, 장기손해보험, 자동차보험 등 가계성 보험을 중심으로 성장하였고, 기업성 보험은 크게 발전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은 국내 손해보험산업 내에서 일반손해보험의 시장 지위 변화 추세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국내 일반손해보험은 주로 기업성 보험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II-2> 손해보험종목별 구성비 변동 추이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 손해보험산업에서 1980년대 40%를 차지하던 기업성 보험 중심의 일반손해보험 비중은 2020년대에 7%대까지 하락하였다.



〈그림 II-2〉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구성비 변동 추이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도

손해보험산업의 매출 구성비에서 일반손해보험의 비중 하락은 공급과 수요 양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보험 공급 측면에서 손해보험산업은 1990년대부터 보험설계사 채널을 중심으로 가계를 대상으로 한 장기손해보험 중심의 성장 전략을 추진해 왔고, 이는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다만, 장기손해보험 성장의 중심 채널은 설계사 채널에서 독립대리점 채널(GA)로 변화했다. 보험 수요 측면에서 가계성 고객 중심의 장기보험은 저축성 보험, 건강보험, 운전자보험, 통합보험, 장기간병보험 등이 순차적으로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면서 보험침투율이 급격히 높아졌다. 반면, 일반손해보험은 대기업 고객을 위주로 한 기업성 보험 중심으로 발전하였는데, 기업의 낮은 리스크관리 의식과 보험료의 비용 중심 인식으로 대기업의 경우조차도 보장 공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국내 기업성 보험 중에서도 보장 공백이 크고 시장 형성이 불충분한 것으로 알려진 중소기업의 보험시장 현황을 자세히 탐색함으로써 국내 기업성 보험의 저성장의 원인 중 하나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소기업 보험시장 연구는 국내 손해보험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탐구라는 성격을 지닌다.

## 다. 국내 기업성 보험시장 현황

### 1) 선행 연구 검토

기업성 보험시장 규모를 제시한 선행 연구는 보험개발원(2022a)과 송윤아·한성원(2020)이 있다.

보험개발원의 기업성 보험 통계분석보고서는 손해보험회사의 통계를 기준으로 기업성 보험을 분류한다. 이 보고서의 방법론을 적용할 경우, <표 II-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2년 기준 기업성 보험 보험료는 5조 2,854억 원, 일반손해보험 총 보험료의 45.3%이다. 이 분석은 기업성 보험에 대해 보험종목별로 구분하여 업종별, 가입금액별 구성비 등 세부 구성비를 제시한 유일한 사례라는 의미가 있다.

<표 II-4> 보험개발원 제시 기업성 보험 현황

(단위: 건, %)

구분		2020	2021	2022	'22년 성장률 (전년 대비)
화재	건수	355,484	366,298	356,266	-2.7
	보험료	204,740	208,759	213,787	2.4
해상	건수	2,836,877	3,531,940	2,983,964	-15.5
	보험료	699,833	742,090	874,784	17.9
기술	건수	17,882	19,509	20,677	6.0
	보험료	298,704	365,398	441,662	20.9
배상	건수	1,797,175	1,563,601	1,699,498	8.7
	보험료	1,212,367	1,347,045	1,473,690	9.4
종합	건수	274,917	300,137	310,577	3.5
	보험료	1,671,344	2,000,825	2,281,468	14.0
합계	건수	5,282,335	5,781,485	5,370,982	-7.1
	보험료	4,086,988	4,664,117	5,285,391	13.3
	구성비 (총보험료비)	42.6	43.3	45.3	2

자료: 보험개발원, 『2022년 기업성 보험 통계분석보고서』; 2022년 실적은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2022년 12월)를 참조하여 작성함

하지만, 이 분석은 기업성 보험을 화재보험, 종합보험, 배상책임보험, 해상보험, 기술보험으로 제한하고 있다. 상해보험 중 단체상해보험, 특종보험 중 농작물재해보험, 농기계보험, 가축재해보험, 풍수해보험, 원자력보험 등 다양한 기업성 보험이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국내 기업성 보험의 전체 모습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국내 기업성 일반손해보험 실적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기업성 보험 통계분석보고서의 분석 방법론을 확장하여 다른 기업성 일반손해보험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송윤아·한성원(2020)은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통계를 이용하여 기업성 보험 규모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 방법론을 사용하여 2022년 실적을 보면, 기업성 보험료는 21조 2,259억 원이다. 이 연구는 기업 규모별 보험료, 업종별 보험료,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율 등을 제시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전 산업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율은 0.38%이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 보험료가 크다. 중소기업 보험료는 전체 보험료의 69.3%를 차지한다.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율도 중소기업(0.66%)이 대기업(0.2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5〉 기업경영분석의 기업성 보험료 현황(2022년)

(단위: 억 원, %)

구분		매출	보험료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율
전체		55,318,539	212,559	0.38
기업 규모	대기업	33,026,320	65,198	0.20
	중소기업	22,292,218	147,361	0.66
업종별	제조업	24,860,911	68,041	0.27
	비제조업	30,457,626	144,517	0.47

자료: 한국은행, 『2022년 기업경영분석』

여기서 기업성 보험료 실적은 보험개발원의 방법론에 비해 기업성 보험의 범위가 넓다. 따라서, 보험료 규모도 보험개발원의 수치보다 훨씬 크다. 하지만, 이 자료는 보험종목별 현황을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한국은행 통계는 본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한 자동차보험, 자동차공제, 보증보험 실적을 포함하고 있다. 〈표 II-6〉은 한국은행 통계에 포함된 자동차보험과 보증보험 실적의 추정치이다. 자동차보험 및 공제 실적은 6.7조 원<sup>21)</sup>

21) 2022년 기업성 자동차보험 실적 5.2조 원과 2021년 영업용 자동차공제 실적 1.5조 원을 합산한 것임

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기업성 보증보험 실적은 1.3조 원<sup>22)</sup>으로 추정된다. 이를 합산하면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의 보험료 실적 중 자동차보험 및 공제와 보증보험 규모<sup>23)</sup>는 8조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표 II-6〉 기업성 자동차보험(공제) 및 보증보험 현황

(단위: 조 원)

구분	보험료
영업용+업무용 자동차보험(손해보험) <sup>1)</sup>	5.2
자동차공제(버스/화물/택시/렌트카 등) <sup>2)</sup>	1.5
기업성 보증보험(SGI서울보증보험) <sup>3)</sup>	1.3
소계	8.0

주: 1)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2022년 12월)를 기준으로 집계함

2) 보험개발원, 『2021년 보험통계연감』 자료를 기준으로 하되, 렌트카 실적은 한국공제신문(2022. 11. 16)을 참조함

3) 보증보험 전체 실적은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2022년 12월) 기준이지만, 기업성 보증보험을 추정하기 위한 차감 항목인 신용보험 및 가계성 보증보험 추정치는 보험개발원, 『2021년 손해보험통계연보』 실적을 사용함

자료: 1) 보험개발원, 『2021년 보험통계연감』; 보험개발원, 『2021년 손해보험통계연보』, 단, 2022년 실적은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2022년 12월)를 기준으로 집계함

2) 한국공제신문(2022. 11. 16), “렌트카공제조합,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개최”를 참조함

## 2) 기업성 보험시장 추정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연구에서 정의한 기업성 보험은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일반손해보험 및 일반손해공제, 장기재물보험, 장기단체상해보험, 신용보험 등이다. 각 보험종목별로 기업성 보험 시장규모를 추정한다.

22) 2022년 SGI서울보증보험 전체 실적과 2021년 보증보험종목별 실적을 활용하여 기업성 보증보험 실적을 연구자가 추정하였음

23) 보증보험료, 보증공제료, 보증료는 손익계산서상 보험료 또는 수수료로 인식될 수 있음. 여기서는 기업들이 SGI서울보증보험의 보증보험료 등을 손익계산서상 보험료로 인식하였다고 가정함. 실제에서는 보증보험료를 수수료로 인식할 수도 있고, 보증공제료를 보험료로 인식할 수도 있음

## 가) 기업성 일반손해보험

국내 손해보험산업의 종목별 보험료 중 기업성 보험과 가계성 보험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종목은 화재보험과 종합보험이다. 화재보험의 경우 주택, 일반, 공장으로 구분되어 있고, 종합보험은 가계성 종합보험과 기업성 종합보험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이다. 화재보험 및 종합보험에서 기업성 보험 비중은 각각 66.9%, 99.2%이고, 2가지 종목을 합산할 경우 95.4%이다. 가계성 보험의 합산 비중은 4.6%이다.

해상보험, 기술보험, 근재보험은 모두 기업성 보험으로 분류할 수 있다.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개인배상책임보험을 제외하면 대부분 기업성 보험으로 볼 수 있다. 기타 특종보험 중 유리보험, 비용보험, 원자력보험, 상금보상보험 등은 기업성 보험에 속한다. 풍수해보험의 경우 주택은 가계성 보험인데 비해, 온실 및 소상공인은 기업성 보험에 속한다.

최종 수요자가 개인 또는 가계이지만, 보험상품 판매가 기업 채널을 통해 단체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계약자가 사업자이기 때문에 기업성 보험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계약 형태를 취하더라도 실질적인 보험료 납부와 피보험자가 개인 또는 가계이면 기업성 보험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기업 간 계약을 통해 최종 소비자인 개인과 거래가 형성되는 이런 유형의 거래는 흔히 B2B2C<sup>24)</sup> 거래로 불린다. 이런 유형에 해당하는 것이 여행보험, 휴대폰보험, 부동산잔존가액보장보험(Residual Value Insurance, 이하 'RVI'라 함)<sup>25)</sup>, 부동산권리보험, 아파트단체보험 등이다. 보험산업 실무에서는 이렇게 기업 간 보험계약을 통해 최종 소비자를 확보하는 경우를 기업성 보험으로 분류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를 가계성 보험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상해보험의 경우 단체상해보험은 명확히 기업성 보험이고, 개인상해보험은 명확히 가계성 보험이다. 여행보험은 대부분 가계성 보험이다.<sup>26)</sup> 여행보험의 경우 개인이 여행사를 통해 가입하는 경우 보험산업 실무에서는 기업성 보험으로 분류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가계성 보험으로 분류한다.

24) Business to Business to Customer

25) RVI에는 휴대폰 RVI, 부동산가격 RVI 등이 있음. 휴대폰 RVI의 보험료는 통신사의 마케팅 비용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통신사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기업성 보험의 성격도 강함.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가계성 보험으로 분류함

26) 여행보험 중 출장 등 목적의 기업성 보험이 일부 있을 수 있으나 그 비중은 미미할 것으로 보임

휴대폰보험의 경우 주로 개인이 가입하지만 보험계약은 주로 통신대리점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기업성 보험의 외형을 띠지만 보험료 납입 주체가 가계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본 연구에서 휴대폰보험은 가계성 보험으로 분류한다.

금융기관의 부동산담보대출 시 담보부동산의 가격하락리스크를 담보하는 RVI, 부동산거래 상 사기로부터 임차인이나 매수인을 보호하는 부동산권리보험 등도 최종 소비자도 가계가 대부분이다. 이 보험도 외형상 기업성 보험인데, 주로 대출을 하는 금융기관과의 계약 형태를 띠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RVI와 부동산권리보험을 가계성 보험으로 분류한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농기계보험은 농업인이 가입하는데, 농업이나 축산업을 위한 사업용 보험이므로 기업성 보험에 해당된다.<sup>27)</sup>

국내 일반손해보험은 2022년 기준 9조 7,126억 원<sup>28)</sup>이다. 이 중 종목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화재보험 및 종합보험을 합친 비중이 27.1%로 가장 크고, 기타 특종보험이 24.1%, 상해보험 18.5%, 책임보험 14.3% 등이다. 2022년 국내 일반손해보험 실적을 앞에서 서술한 방법론에 따라 기업성 보험과 가계성 보험으로 구분한 결과가 <표 II-7>이다. 기업성 보험은 전체 원수보험료의 87.4%, 8조 4,874억 원으로 추정된다. 일반손해보험 중 대다수가 기업성 보험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해상보험, 기술보험, 근재보험, 책임보험,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등 다수의 보험종목은 전체 보험료 중 기업성 보험 비중이 100%이다. 기업성 보험과 가계성 보험이 혼재된 보험종목들에서 기업성 보험 비중이 높은 순서대로 살펴보면, 종합보험(99.2%), 상해보험(82.0%), 화재보험(66.9%), 기타특종보험(40.2%,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 제외) 등으로 나타난다. 기업성 보험의 종목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화재보험 및 종합보험 비중 29.5%, 단체상해보험 17.4%, 책임보험 16.4%,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보험 15.1%, 해상보험 10.3%, 기술보험 5.2%, 기타특종보험(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 제외) 5.0%, 근재보험 1% 등이다.

27) 다만, 한국은행, 『2023 기업경영분석』에서는 농업인의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 중 상당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왜냐하면 농업인 중 상당수가 중소기업에 속하지 않기 때문임. 중소기업 통계상 소상공인을 포함한 농업 기업 수는 52,745개인데, 농작물재해보험가입 대상인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 포함) 수는 183만 개에 이룸

28) 일반손해보험 실적 중 보증보험과 해외원보험을 제외한 수치임

〈표 II-7〉 국내 기업성 일반손해보험 추정

(단위: 억 원, %)

구분	원수보험료		기업성 보험			가계성보험	
	보험료	구성비	보험료	비중	구성비	보험료	비중
화재보험	3,195	3.3	2,138	66.9	2.5	1,058	33.1
종합보험	23,097	23.8	22,919	99.2	27.0	178	0.8
해상보험	8,762	9.0	8,762	100	10.3	-	0
기술보험	4,419	4.5	4,419	100	5.2	-	0
근재보험	872	0.9	872	100	1.0	-	0
책임보험	13,932	14.3	13,931	100	16.4	1	0
상해보험	17,993	18.5	14,760	82.0	17.4	3,233	18.0
질병보험	345	0.4	-	-	-	345	100
부동산권리보험	1,115	1.1	-	-	-	1,115	100
기타특종보험	23,396	24.1	17,074	73.0	20.1	6,322	27.0
농작물보험	10,595	10.9	10,595	100	12.5	-	0
가축보험 <sup>1)</sup>	2,235	2.3	2,235	100	2.6	-	0
기타 <sup>1)</sup>	10,567	10.9	4,244	40.2	5.0	6,322	59.8
계	97,126	100	84,874	87.4	100	12,253	12.6

주: 1) 보험회사 내부 자료, 2021년 실적 등에 기초한 추정치를 포함한 수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2022년 12월)를 기준으로 집계 및 추정함(보증보험 및 해외원보험 제외)

#### 나) 기업성 장기재물보험 및 장기단체상해보험

국제적 비교 관점에서 국내 손해보험산업의 가장 큰 특징은 장기손해보험의 높은 비중이다. 장기손해보험은 보험기간이 3년 이상인 손해보험이다. 장기손해보험은 보험기간 동안 보험료가 변동하지 않고 만기환급금을 목적으로 한 적립보험료가 보험료의 한 구성 부분을 차지하는 특징을 지닌다. 보험계약이 종료되면 보험계약자는 만기환급금을 수령한다. 이러한 장기손해보험은 주로 가계성 보험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장기손해보험은 기업성 보험으로도 판매되고 있다. 장기손해보험시장에서 기업성 보험시장의 비중과 역할은 지금까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고 분석의 대상이 된 적이 없다.

장기손해보험 중 장기재물보험은 화재손해 및 배상책임손해 등을 담보하는 보험이다. 장기재물보험은 가계의 주택화재를 보장하면서 만기환급금을 지급하는 보험도 있지만, 기업성 보험의 형태로도 판매된다. 기업성 보험으로서의 장기재물보험은 소상공인 및 기업의 건물 및 공장의 화재를 주담보로 하여 특약을 통해 영업활동 중의 배상책임손해 등 다

양한 위험을 담보하는 구조를 가진다.

〈표 II-8〉 장기재물보험의 유형

구분	보장담보		적립담보
	재물	배상책임	
가계성 보험	주택화재	일상생활배상책임	적립보험료
기업성 보험	일반화재 공장화재	영업배상책임 신체손해배상특약 대물배상책임특약	적립보험료

장기재물보험은 2022년 기준으로 원수보험료가 4조 원에 이른다. 하지만 장기재물보험 실적은 기업성 보험과 가계성 보험으로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는 기업성 장기재물보험 실적을 추정하기 위해 국내 주요 손해보험회사의 내부 분석 자료를 활용했다. 추정에 사용된 손해보험회사의 실적은 전체 장기재물보험 실적의 47.5%를 차지한다. 내부 분석자료에서 나타난 기업성 보험 비중은 76%였다. 연구자의 기업성 장기재물보험 비중 추정치는 68~76%<sup>29)</sup>이다. 이를 보험료 실적으로 환산하면 기업성 장기재물보험은 2.7~3.0조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표 II-9〉 장기재물보험 중 기업성 보험 추정

장기재물보험	기업성 보험 비중	가계성 보험 비중
3조 9,914억 원	68~76%	24~32%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2022년 12월)를 기준으로 연구자가 추정함

일반손해보험의 단체상해보험과 달리 장기단체상해보험은 손해보험회사 및 생명보험회사 모두 판매한다. 장기단체상해보험 실적은 보험회사 업무보고서의 영업실적 공시 자료를 기준으로 추정하기 어렵다. 손해보험회사의 장기단체상해보험은 장기손해보험 중 상해보험의 일부이고, 생명보험회사의 장기단체상해보험은 단체보험의 보장성 보험 중 기타 보

29) 내부 분석자료를 제공한 손해보험회사는 2개사임. 나머지 손해보험회사들의 장기재물보험 중 기업성 보험 비중은 60~76%로 가정하였음. 화재 및 배상책임담보의 연간 경과위험보험료 중 기업성 담보의 비중을 보여주는 산업통계(보험개발원 통계)는 기업성 보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음. 위험보험료 비중보다 가계성 보험의 비중이 높은 것은 가계성 보험에서 적립보험료 비중이 더 크기 때문으로 추정됨



협의 일부이다. 더욱이 그 비중은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추정된다. 장기단체상해보험의 실적 추정은 보험회사 내부 통계 자료나 설문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다) 손해보험산업 이외 기업성 손해공제 추정

기업성 보험시장의 전체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 실적뿐만 아니라 공제기관이 판매하는 손해공제상품 실적을 별도로 취합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 공제기관은 기업성 손해공제 실적을 별도로 구분하여 공시하지 않는다. 본 연구는 주요 공제기관의 손해공제상품 실적을 살펴보고, 논리적 추론을 통해 기업성 손해공제상품 실적을 추정하였다.

실적 집계가 이루어진 주요 공제기관 중 손해공제료가 가장 큰 기관은 수협이다. 수협은 어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성 보험을 판매하고, 손해공제상품도 공급한다. 어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성 보험은 의무보험인 어선재해보상보험과 어선원재해보상보험과 임의보험인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있다. 어민, 양식업자 등이 가입하는 이들 정책성 보험은 어업인의 사업리스크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기업성 보험으로 분류할 수 있다. 2021년 기준 실적을 보면, 어선·어선원재해보상보험 2,533억 원, 양식수산물재해보상보험 242억 원에 이른다. 정책성 보험 이외의 손해공제상품 실적은 142억 원이다. 수협의 공제료 2,900억 원은 기업성 손해공제 실적으로 추정된다.<sup>30)</sup>

새마을금고와 신협도 화재공제, 특종공제, 장기손해공제를 판매하는데 상당수가 기업성 공제로 추정된다. 손해공제 실적은 각각 549억 원, 578억 원으로 추정했다.<sup>31)</sup>

중소기업중앙회는 파란우산공제, 제조물책임보험 등을 판매하는데 2021년 기준 실적이 195억 원이다. 건설업에서 다양한 공제조합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인 공제조합이 건설공제조합 및 전문건설공제조합이다. 2021년 기준 이들 공제조합의 손해공제 실적은 각각 550억 원, 664억 원이다.

30) 수협의 손해공제 중 가계성 공제가 일부 포함되지만, 집계에서 제외한 장기공제에도 기업성 공제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체 손해공제 실적을 기업성 손해공제 실적으로 추정함

31) 새마을금고의 기업성 손해공제 실적은 계약 건수 기준으로 가계성 손해공제 비중을 차감하였음. 신협의 경우 가계성 손해공제가 포함된 실적이지만, 기업성 손해공제로도 판매되는 장기공제 실적이 제외한 점을 감안하여 전체 손해공제 실적을 기업성 실적으로 추정함

선주들은 해상보험 이외에 선주책임상호보험을 가입한다. 이는 선박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선주의 배상책임을 선주 상호 간에 담보하는 보험으로 P&I 보험으로 불리며, 해상보험 증권에서 담보하지 않는 위험을 담보한다. 이러한 선주책임상호보험을 제공하는 공제조합으로 한국해운조합과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이 있다. 각각 745억 원(2022년), 440억 원(2021년)의 공제로 실적을 거수했다.<sup>32)</sup>

주요 공제기관의 기업성 공제로 실적은 <표 II-10>과 같이 6,621억 원 규모이다. 여기서 열거한 공제조합 이외에 다양한 공제조합<sup>33)</sup>이 기업성 손해공제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기업성 손해공제 실적은 표에서 집계한 실적보다 더 많다.

〈표 II-10〉 주요 기업성 손해공제 실적

(단위: 억 원)

구분	공제로	비고
수협	2,900	어선·어선원재해보상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손해공제
새마을금고	549	손해공제
신협	578	화재공제, 특종공제
신협	578	화재공제, 특종공제
중소기업중앙회	195	파란우산공제, PL단체보험
건설공제조합	550	손해공제
전문건설공제조합	664	손해공제
한국해운조합	745	P&I 등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440	P&I 등
합계	6,621	-

자료: 보험개발원, 『2021년 보험통계연감』; 건설공제조합(2023); 전문건설공제조합(2023); 한국해운조합(2023); 코리아슈핑가제트(2023. 3. 28), “토종 해상보험사, 올해 10억 흑자 전망”

32) 한국해운조합(2023); 코리아슈핑가제트(2023. 3. 28), “토종 해상보험사, 올해 10억 흑자 전망”

33) 2014년 기준 손해공제상품 제공 공제조합은 73개에 이른다. 송윤아·한성원(2020), pp. 15~18에서 인용함

## 라) 신용보험 추정

상품 및 서비스 거래를 행하는 기업들은 거래상대방의 매출채권 미회수 리스크에 직면한다. 이러한 리스크를 보장하는 상품을 통칭하여 신용보험이라고 한다. 신용보험에 해당하는 상품 명칭은 공급기관마다 조금씩 다른데 상업신용보험, 수출보험, 매출채권보험 등으로 불린다.

국내에서 신용보험은 민간 보험회사로 SGI서울보증보험, 공공기관으로 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판매한다. 2016년부터는 손해보험회사도 신용보험의 한 종류인 단기수출보험을 판매한다. 신용보증기금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정부 출연 기금을 바탕으로 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민영 보험시장에서 제공하기 힘든 가격과 조건으로 신용보험을 공급하고 있다. 각 기관별로 제공하는 신용보험은 <표 II-11>과 같다. 중소기업 지원의 일환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용보험에 가입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보험료를 지원하기도 한다.

<표 II-11> 국내 신용보험 제공 현황

구분	상품	SGI서울보증 보험	신용보증 기금	한국무역 보험공사
신용보험	상업신용보험	○	○	○
	재무신용보험	○	-	○
	정치신용보험	○	-	○
	선급금신용보험	-	-	○

자료: 보험연구원·보험연구원 산학연구센터(2020)

신용보험 실적은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SGI서울보증의 2021년 실적과 손해보험회사와 신용보증기금의 2022년 실적을 기준으로 총 6,179억 원으로 집계된다. 신용보험은 모두 기업성 보험으로 볼 수 있다.

〈표 II-12〉 신용보험 보험료 실적

(단위: 억 원)

제공기관	상품 구분	보험료
SGI서울보증	상업신용보험	507
손해보험회사	상업신용보험(단기수출보험)	35
한국무역보험공사	단기신용보험	1,936
	장기신용보험	3,120
	환보험	32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	549
합계		6,179

자료: 보험개발원, 『2021년 손해보험통계연보』; 신용보증기금(2023), 단, 손해보험회사 실적은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2022년 12월)를 기준으로 집계함

지금까지 제시한 기업성 보험 실적 추정을 종합하면, 손해보험회사의 기업성 일반손해보험, 장기재물보험, 공제조합 등의 손해공제, 신용보험 공급기관에 의한 신용보험 등을 합산하여 12.2~12.8조 원에 이른다. 이 추정치에는 집계에 포함하지 않은 여러 손해공제조합 실적 및 장기단체상해보험 실적이 제외되어 있다.

### 3) 국내 기업성 보험시장의 평가

세계 기업성 보험시장 규모 추정은 손해보험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스위스리의 분석<sup>34)</sup>에 따르면 2022년 세계 기업성 보험시장 규모는 8,400억 달러이다. 이중 재물보험은 37%인 3,100억 달러, 배상책임보험은 43%인 3,600억 달러, 기타 보험은 2,300억 달러이다. 국제 비교에서 우리나라 기업성 보험시장은 일반손해보험시장 전체 보험료 실적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기준으로 산출하면 국내 기업성 보험시장은 세계시장 대비 0.9%로 추정된다.<sup>35)</sup> 이 수치는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세계시장에서의 지위와 점유율과 비교할 때 기업성 보험시장의 시장 지위 및 시장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보여준다. 국내 보험시장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합쳐서 2022년 기준 세계 7위 규모이고, 세계시장점유율은 2.7% 수준이다. 손해보험시장으로 한정하더라도 세계 7위 규모이고 시장 점유율은 2.4%이다. 우리나라 손해보험시장의 높은 시장 지위는 국내 손해보험 매출의

34) Swiss Re(2023), p. 19

35) Swiss Re(2023)의 달러 기준 한국 손해보험 보험료에서 일반손해보험 실적 비중을 감안하여 추정한 수치임. 이 때 일반손해보험 실적 비중은 원화 기준 국내 손해보험산업 실적에서 일반손해보험 실적을 사용하였음

72%를 차지하는 장기손해보험시장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 손해보험시장과 동일 기준으로 국내 손해보험시장을 평가하려면 장기손해보험 실적을 제외한 실적(일반손해보험 및 자동차보험)을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손해보험시장 지위는 세계 15위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 중 보험료 비중이 높은 자동차보험만의 시장 지위를 OECD 등의 통계를 기반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보다 시장 규모가 큰 국가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정도에 불과하다. 즉, 손해보험시장 중 자동차보험시장에서 우리나라 시장의 지위는 세계 7위, 시장점유율 1.9% 수준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장기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국내 기업성 보험시장은 다른 보험종목에 비교할 때 상당히 국제적으로 낮은 시장 지위를 가진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표 II-13〉 국내 기업성 보험시장의 국제적 지위

(단위: 억 달러, %)

구분	시장규모 및 비중	비고	
		재물	배상
세계 기업성 보험시장	8,400	재물	3,100억 달러
		배상	3,600억 달러
		기타	2,300억 달러
국내 기업성 보험시장의 비중	0.9	일반손해보험 실적 기준	
국내 전체 보험시장의 비중	2.7	세계 7위	
국내 생명보험시장의 비중	3.1	세계 9위	
국내 손해보험시장의 비중 (장기손해보험/자동차보험/ 일반손해보험 합산)	2.4	세계 7위	
국내 자동차보험시장의 비중	1.9 <sup>1)</sup>	세계 7위 <sup>2)</sup>	

주: 1) Swiss Re(2023), p. 19의 세계 자동차보험 실적 대비 국내 자동차보험 실적 비중임

2) OECD Statistics의 국가별 자동차보험 실적과 중국 자동차보험 실적 자료 참조하여 추정함

자료: Swiss Re(2023); OECD Statistics

## 2. 국내 중소기업 시장 현황과 이슈

### 가. 중소기업의 정의

중소기업의 정의는 국가마다 상이하다. 국내 중소기업의 정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 독립성 기준 충족, 업종별

매출액 400~1,500억 원 미만 기업을 의미한다.

〈표 II-14〉 국내 중소기업 정의

구분		정의	
관계 법령		중소기업 기본법	
적용 대상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상법상 회사) 또는 사회적 기업	
적용 요건	자산 총액 기준	5천억 원 미만	
	독립성 기준	상호출자제한대상기업집단 소속사로 지정된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	
	매출액 기준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평균매출액 등 1,500억 이하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가구 제조업	
		농업, 임업, 어업, 광업	평균매출액 등 1,000억 이하
		식료품 제조업	
		담배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전기업, 수도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평균매출액 등 800억 이하		
음료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평균매출액 등 600억 이하		
그 밖의 제품 제조업			
임대서비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여가관련 서비스업	평균매출액 등 400억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임대업, 교육서비스업	평균매출액 등 400억 이하		

자료: 중소기업중앙회(2022)

국가별로 살펴보면, 일본은 고용자 수, 자본금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정의하고, 미국은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독일은 종사자 수 및 매출액을 동시에 고려하고, 영국은 종업원 수와 매출액을 사용한다. 각 국가마다 종사자 수, 매출액, 자본금 기준도 모두 상이하다.

〈표 II-15〉 주요국 중소기업 정의

구분	정의
일본	상시 고용 50~300인 이하, 자본금 5천 만~3억 엔 이하(제조업 300인 이하, 자본금 3억 엔 이하)
미국	업종별로 종업원 또는 연간매출액 기준(제조업/도매업은 종업원 수 기준, 광업은 세부업종별로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 이외 업종은 매출액 기준), 예를 들면, 제조업 500~1,500인 이하, 건설업 600만 달러 미만
독일	종사자 수 250인 미만 & 연간 매출액 5천 만 유로 미만
영국	종업원 250인 미만, 연간 매출액 2,280만 파운드 미만

자료: 중소기업중앙회(2022)

중소기업 연구는 국가 간 중소기업 범위가 상이하므로 학문적 엄밀성 측면에서 국제 비교가 어렵다. 국가별로 공적으로 사용하는 정의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연구자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보험시장 연구 결과에 근거한 국제 비교는 이러한 한계를 염두에 두고 해석되어야 한다.

## 나. 중소기업의 중요성

국내에서 중소기업은 경제생태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99.9%를 차지하고, 종업원 수 기준으로는 81.3%를 고용하고 있으며, 매출도 47.2%로 절반의 비중을 기록하고 있다.<sup>36)</sup> 이러한 구성비를 감안하면 중소기업 보험시장은 높은 시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6) 한국은행, 『2023년 기업경영분석자료』를 보면, 설비자산(건물 및 구축물 등)은 전체의 29.6%로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함

〈표 II-16〉 국내 중소기업의 경제적 비중

구분	내용	비중
기업 수	7,286,023개	99.9%
종사자 수	17,541,182명	81.3%
매출액	2,673조 원	47.2%

자료: 중소기업중앙회(2022)

중소기업이 경제와 기업성 보험시장 모두에서 가지는 중요성 중 하나는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기업성 보험에 관한 선행 연구도 중소기업 보험료가 대기업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 10년간 대기업은 매출액 연평균 성장률 3.9%, 보험료 연평균 성장률 4.4%였던 것에 비해, 중소기업은 매출액 6.5%, 보험료 9.6% 성장한 것으로 나타난다.<sup>37)</sup> 중소기업의 시장 잠재력은 지속적인 창업 측면에서도 볼 수 있다. 지난 4년간 국내 연간 창업기업 수는 129~148만개, 법인으로 한정하더라도 10~13만 개에 이른다.<sup>38)</sup> 이는 중소기업 보험 시장에서 지속적인 신규 수요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 다. 중소기업 시장 규모의 추정

중소기업 시장 규모를 제시한 선행 연구는 송윤아·한성원(2020)이 유일하다. 선행 연구는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을 이용하였다. 이 방법론에 따른 2022년 중소기업 보험시장 규모는 14조 7,360억 원,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율 0.66%이다.

〈표 II-17〉 기업경영분석 중소기업 보험시장

(단위: 조 원, 억 원, %)

구분	2012	2016	2020	2022
매출액	1,189	1,580	1,814	2,229
보험료	59,022	93,609	120,272	147,360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중	0.50	0.59	0.66	0.66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 연도

37)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 연도 실적을 기준으로 연구자가 계산함

38) 중소벤처기업부(2023. 3. 3), “2022년 연간창업기업 동향 발표” 보도자료



본 연구는 자동차보험, 생명보험, 보증보험을 제외하고 중소기업의 보험시장을 추정하고자 한다. 앞에서 서술하였듯 자동차보험 및 보증보험시장 총 규모는 최대 8조 원으로 추정되고, 이 중 다수가 중소기업 보험료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영업용 자동차보험가입자의 상당 부분이 중소기업이고, 업무용 자동차보험과 보증보험의 경우에도 대기업의 비중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자동차보험과 보증보험을 제외할 경우 중소기업 시장 규모는 선행 연구에 비해 상당히 적은 수치를 보일 것이다.

본 연구가 선행 연구와 다른 또 다른 특징은 보험종목별로 중소기업 시장을 추정하는 데 있다. 일반손해보험의 종목별 시장 규모를 추정하는 데 존재하는 제약은 손해보험회사 내부 통계를 활용하여 극복될 수 있다. 반면, 장기재물보험, 손해공제, 신용보험 등은 여전히 중소기업 시장 추정이 어려워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연구자의 추정치를 제시한다.

## 1) 중소기업 일반손해보험시장

지금까지 일반손해보험의 중소기업 시장 실적 자료는 보험산업 내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기업 규모 분류에 따른 고객 세분화와 마케팅 전략이 손해보험회사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손해보험회사 고객 구분의 초점은 대기업을 장기적인 고객 관계를 맺어온 대기업 그룹군과 일반 대기업으로 구분하는 것이었다. 손해보험회사의 채널 전략은 임직원, 보험중개사(브로커), 대기업 고객을 가진 대리점 등을 통해 이러한 대기업 고객군에 영업을 전개하는 데 주로 초점이 맞추어졌다. 반면, 중소기업 시장은 주로 보험설계사, 전속대리점, 독립대리점(GA) 중심으로 영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손해보험산업의 실무에서는 중소기업 시장을 보험설계사, 독립대리점(GA) 등을 통한 일반손해보험 판매 시장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중소기업 시장을 엄밀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원수보험료 실적을 보험계약자의 속성을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어야 한다. 보험계약자의 사업자번호가 있는 경우 사업자번호를 기준으로 대기업(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사업자번호 없이 개인식별번호를 쓰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보험계약이 기업성 보험계약에서 누락될 수 있다. 이런 경우 중소기업계약은 보험상품을 기준으로 추가로 식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보험종목별 중소기업 실적을 추정하기 위해 대형 손해보험회사 3개 사, 중소형 손해보험회사 1개 사의 2022년 원수보험료 기준 보험종목별 중소기업 매출 자료를 이용했다. 중소기업 원수보험료는 보험계약자의 사업자번호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의했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개인주민번호를 사용한 계약의 경우에도 세부 보험종목이 기업성 보험이면 중소기업 실적으로 수정하였다. 추정에 사용한 4개 보험회사 보험료는 손해보험산업 원수보험료의 48%를 차지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론을 사용하여 중소기업 일반손해보험시장을 추정했다.

먼저, 보험종목은 <표 II-19>의 11개 구분을 사용했다. 보험종목별 중소기업 매출 실적이 존재하지 않는 손해보험회사는 총 16개 사이다. 이들 손해보험회사의 종목별 중소기업 비중은 4개 보험회사의 비중을 활용하여 추정했다. 이때 보험종목별 중소기업 비중 추정치는 보험회사별 고객 특성을 감안하여 연구자가 추정했다. 예를 들면 대형 보험회사의 보험종목별 중소기업 비중은 유사한 대형 보험회사 비중을 참조하여 추정했고, 중소형 보험회사의 비중 추정치는 중소형 보험회사의 비중치 특성을 감안하여 산출했다. <표 II-18>은 4개 보험회사의 주요 보험종목별 기업성 원수보험료 대비 중소기업 비중의 분포이다.

<표 II-18> 보험종목별 중소기업 비중 분포

(단위: %)

구분		기업성 원수 보험료 대비 중소기업 보험료 비중
화재보험	일반화재	51.6~76.5
	공장화재	48.5~98.0
기업성 종합보험		8.1~52.2
해상보험		3.9~16.1
기술보험		2.6~41.0
근재보험		18.8~76.3
책임보험		13.8~36.9
단체상해보험		2.9~42.0

자료: 보험회사 내부 자료

추정 결과, 2022년 기준 중소기업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2.9조 원로 나타났다. 이

는 일반손해보험 전체 원수보험료의 29.9%, 기업성 보험의 34.2%이다.

대다수의 손해보험산업 종사자들은 일반손해보험에서 중소기업 비중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 비해 중소기업 매출 비중이 전체 원수보험료의 29.9% 수준인 것은 상당히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 인식과 추정 결과치가 차이를 보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단체상해보험 중 외국인상해보험 실적과 관련이 있다. 본 연구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외국인상해보험을 중소기업 보험 실적에 포함했다. 농업 및 축산업 종사자들이 가입하는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은 규모가 1.3조 원에 달한다. 외국인상해보험은 규모가 4천억 원에 육박한다.<sup>39)</sup> 또한 이 실적들은 일부 보험회사만 판매하기 때문에 다른 손해보험회사의 중소기업 비중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손해보험산업 전체 실적과 개별 보험회사 실적이 차이를 보이는 중목이 있음에 따라 회사별로 중소기업 매출 비중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sup>40)</sup>

이러한 인식상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단체상해보험을 제외한 중소기업 보험시장 규모와 비중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산출할 경우, 중소기업 보험료 추정치는 1.3조 원,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대비 18.4%, 기업성 보험 대비 22.3%이다.

중소기업 시장의 보험종목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의 구성 비중은 43.7%에 이른다. 외국인상해보험이 포함된 단체상해보험 비중은 11.9%로 추정된다. 화재보험 및 종합보험의 비중은 21.0%이고, 책임보험 비중은 12.8%로 추정된다. 해상보험과 기술보험은 각각 3.1%, 근재보험은 1.6%로 추정된다.

중소기업 보험료가 기업성 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 추정치를 보험종목별로 살펴보면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풍수해보험(이하 100%), 화재보험(75.3%), 근재보험(54.8%), 책임보험(26.7%), 단체상해보험(23.5%) 등의 순서로 높은 비중을 보인다. 중소기업 시장 비중이 매우 낮은 보험종목들을 살펴보면, 해상보험(10.2%), 기업성 종합보험(19.5%), 기술보험(20.5%) 등의 순서를 보인다.

39) 외국인상해보험은 삼성화재를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 실적이고, 간사사의 콜센터를 통해 운영됨. 본 연구에서 외국인상해보험 실적은 모두 중소기업 보험 실적으로 가정하였음

40) 농작물재해보험의 100%, 가축재해보험의 대부분이 NH농협손해보험 실적임. 외국인상해보험의 경우에도 삼성화재의 중소기업 매출 비중을 상당히 증가시키는 요인이 됨

〈표 II-19〉 일반손해보험 중소기업 보험료 및 비중<sup>1)</sup>

(단위: 억 원, %)

구분	원수 보험료	기업성 보험료	중소기업 보험		비중	
			보험료	구성비	전체보험료 대비	기업성 보험료 대비
화재보험	3,195	2,138	1,614	5.6	50.5	75.3
종합보험	23,097	22,919	4,470	15.4	19.4	19.5
해상보험	8,762	8,762	896	3.1	10.2	10.2
기술보험	4,419	4,419	904	3.1	20.5	20.5
근로자재해보상보험	872	872	478	1.6	54.8	54.8
책임보험	13,932	13,931	3,723	12.8	26.7	26.7
상해보험	17,993	14,760	3,461	11.9	19.2	23.5
기타특종보험	23,396	17,074	13,515	46.5	57.8	79.2
농작물재해보험	10,595	10,595	10,595	36.5	100	100
가족재해보험	2,235	2,235	2,235	7.7	100	100
풍수해보험	722	542	542	1.9	75.1	100
기타	9,845	3,702	143	0.5	1.5	3.9
합계 <sup>1)</sup>	97,126	84,874	29,061	100	29.9	34.2
합계 <sup>2)</sup>	69,537	57,285	12,770	-	18.4	22.3

주: 1) 2022년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를 기준으로 연구자 추정 결과임

2) 전체 보험료 기준임

3) 전체 보험료에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족재해보험, 상해보험 제외 기준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2022년 12월) 및 4개 손해보험회사 내부 자료를 기준으로 연구자가 추정함

## 2) 기타 중소기업 보험시장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이외의 보험 및 공제 실적 중 중소기업 보험시장을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험종목과 보험공급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자의 논리적 추론을 사용했다. 아래에서 보험종목별 추정 근거와 추정 수치를 제시한다.

앞에서 장기재물보험 중 기업성 보험은 2022년 원수보험료 기준으로 2.7~3조 원 수준으

로 추정했다. 기업성 장기재물보험은 대부분이 중소기업 보험료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대기업의 공장이나 건물은 가입금액과 보험료가 매우 커서 적립보험료를 부가한 장기재물보험으로 판매하기 어렵다. 더욱이 이런 대형 물건은 정형화된 통계요율이 아닌 재보험자 구득요율이나 판단요율을 적용하므로 장기재물보험으로 가입하기도 어려운 제약도 있다. 따라서 기업성 장기재물보험 추정치의 하단 2.7조원을 중소기업 보험 실적으로 추정했다.

손해공제상품은 공제기관의 성격에 따라 중소기업 매출 비중이 다를 것이다. 새마을금고, 신협, 중소기업중앙회의 손해공제 및 보험상품은 모두 중소기업 실적으로 간주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다수가 중소기업 실적으로 판단되어 90%를 적용하였고, 건설공제조합은 대기업 물건 비중이 보다 높을 수 있어 50%로 가정했다.

수협은 손해공제 및 정책성 보험도 대부분이 중소기업 시장으로 추정된다. 보험료 비중이 높은 어선·어선원재해보상보험은 원양어업 및 외항화물운송사업의 경우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협 실적의 90%를 중소기업 실적으로 추정했다.

한국해운조합,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은 조합원 중 대기업이 존재할 것이므로 실적의 50%를 중소기업 실적으로 추정했다.

신용보험 제공기관 중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실적인 반면, 손해보험회사의 단기수출보험은 모두 대기업 실적으로 가정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SGI서울보증보험의 신용보험에는 대기업 및 기타 기관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따라서 SGI서울보증보험의 신용보험 및 무역보험 중 단기신용보험의 30%를 중소기업 실적으로 가정했다.

이러한 추정을 모두 종합한 결과가 <표 II-20>이다. 기업성 장기재물보험, 신용보험, 손해공제 실적을 합산한 중소기업 보험료 및 공제료 실적은 3.4조 원으로 추정된다. 여기에는 분석에 포함하지 않은 장기단체상해보험과 기타 다수 공제조합의 공제료 실적이 제외되어 있다.

〈표 II-20〉 기타 중소기업 보험료·공제로 추정

구분		보험료	비고
기업성 장기재물보험		2.7조 원	기업성 장기재물보험 추정치 하단 적용
공제	새마을금고/신협 /중소기업중앙회	1,322억 원	100% 가정
	수협	2,610억 원	90% 가정
	한국해운조합/한국선주상보험조합	592억 원	50% 가정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	873억 원	건설공제조합 50% 가정 전문건설공제조합 90% 가정
신용 보험	서울보증보험	152억 원	30% 가정
	한국무역보험공사	581억 원	단기신용보험의 30% 가정
	신용보증기금	549억 원	100% 가정
합계		3.4조 원	-

주: 2021년 및 2022년 각 사 실적을 기준으로 연구자가 추정한 수치임

## 라. 중소기업 보험시장 이슈

### 1) 보장 공백

국내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성 보험시장의 주요 문제점 중 하나는 보장 공백(Protection gap)이다. 국내 기업들의 대표적인 보장 공백 사례는 기업휴지보험(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의 낮은 가입률이다. 기업휴지보험은 화재, 침수 등 재난에 따른 사업 중단으로부터 발생하는 간접 손실인 수익 상실을 담보하는 보험이다. 재난이 발생하면 수리비용, 복구비용 등 직접 손실보다 사업 중단에 따른 수익 상실이 더 크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업휴지보험은 기업이 재난으로부터 회복탄력성을 갖기 위한 핵심적인 리스크관리 수단이다. 국내에서는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대다수 기업이 기업휴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2년 태풍 힌남노로 인한 포스코 포항제철소 침수와 100일간의 가동 중단, 2023년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는 기업휴지보험에 대한 국내의 관심을 높이는 사례가 되었다. 포스코와 한국타이어는 사고로 인해 가동 중단으로 막대한 규모의 영업 손실이 발생했지만 기업휴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험으로 간접 손실을 보상받지는 못했다. 이 사례는 국내에서 대기업을조차 기업휴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었다.

보험개발원(2022)에 따르면 재산종합보험 재물담보 가입자 27만 7천 건 중 기업휴지특약 가입 비율은 3.3%에 불과하다. 이기형·한상용(2009)은 낮은 기업휴지보험 가입률을 국내 기업 경영자들의 위험관리에 대한 낮은 인식과 기업휴지보험가입을 기업의 사업연속성 확보를 위한 투자가 아닌 소멸성 비용으로 인식하는 태도로 설명하고 있다. 송윤아·한성원(2020)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기업휴지리스크 발생가능성이 높다고 본 비율이 14.1%이지만, 중소기업은 거의 기업휴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기업의 보장 공백은 기업휴지보험에 한정된 이슈는 아니다. 송윤아·한성원(2020)의 설문조사에서 중소기업 중 일반배상책임 및 제조물배상책임 리스크 발생가능성이 높다고 본 비율이 18.4%, 10.8%이지만, 리스크를 인식한 기업들의 보험가입 비율은 49%, 46%에 머물렀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보장 공백 현황을 설문조사와 정성조사를 통해 보다 자세히 확인할 예정이다.

## 2) 중소기업 보험 판매채널

손해보험회사들은 일반손해보험시장에서 대기업과 단체보험시장에 집중해 왔다. 이러한 주력 시장에 접근하는 판매채널은 법인영업부로 불리는 임직원채널, 보험중개사(브로커), 대기업 고객을 가진 대리점이다. 따라서 손해보험회사의 일반손해보험 영업전략은 이러한 판매채널 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표 II-21〉은 일반손해보험 판매채널 구성을 보여준다. 이는 일반손해보험 판매채널 구성이 설계사와 대리점 중심으로 영입이 이루어지는 생명보험이나 장기손해보험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장 특징적인 점은 임직원과 보험중개사(브로커)가 주요 판매채널로 등장한다는 점이다. 2022년 원수보험료 기준으로 일반손해보험 특종보험 실적의 판매채널 구성비를 보면, 임직원 37.9%, 대리점 24.3%<sup>41)</sup>, 보험중개사(브로커) 18.0%로 나타났다. 특종보험은 종합보험, 상해보험, 책임보험, 기술보험, 기타 특종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반손해보험 매출에서 구성비가 가장 높다. 특종보험에서 임직원채널의 비중이 가장 높고, 보험설계사의 경우 2.4%로 매우 낮다. 기업성 보험의 특성을 가장 잘

41) 대리점은 대기업고객을 가진 일반손해보험 중심 대리점, 생명보험 및 장기보험을 주력으로 판매하는 독립대리점(GA), 보험회사 전속보험대리점이 모두 포함된 개념임. 따라서 대리점이라는 구분은 다양한 채널을 포함하고 있어 판매채널 특성을 보여주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보여주는 보험종목은 해상보험이다. 임직원(50.1%), 보험중개사(브로커)(20.7%), 대리점(26.2%)이 해상보험 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표 II-21〉 일반손해보험 모집형태별 보험료 현황

(단위: 억 원, %)

구분	임직원	보험중개사	대리점	설계사	은행	합계
특종보험	29,669 (37.9)	14,085 (18.0)	19,008 (24.3)	1,882 (2.4)	12,733 (16.3)	78,236 (100)
해상보험	3,727 (50.1)	1,540 (20.7)	1,948 (26.2)	30 (0.4)	10 (0.1)	7,436 (100)
화재보험	253 (7.9)	39 (1.2)	1,952 (61.3)	318 (10.0)	576 (16.3)	3,185 (100)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2022년 12월)를 기준으로 연구자가 작성함

대기업 시장과 달리 중소기업 시장은 보험설계사, 전속대리점, 독립대리점(GA) 등을 중심으로 영업이 이루어진다. 〈표 II-21〉에서 화재보험은 이러한 중소기업 보험에 대한 판매 채널 구성의 특성을 일부 보여준다. 임직원과 보험중개사는 7.9%와 1.2%로 매우 비중이 낮다. 반면, 화재보험의 판매채널 구성에서는 대리점이 61.3%로 가장 높은 구성을 차지한다. 여기서 대리점은 대기업 고객을 가진 일반보험 전문 대리점이라기 보다는 독립보험대리점(GA)와 보험회사 전속대리점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은행, 설계사 채널이 높은 비중을 보인다.

손해보험회사 내에서 일반손해보험 사업 부문은 중소기업 시장에 대한 마케팅 전략 등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sup>42)</sup> 주로 보험설계사, 독립대리점 등에서 유입되는 중소기업 보험계약에 대한 인수 여부 결정에 초점을 맞춘다.<sup>43)</sup> 따라서 손해보험회사 내에서 중소기업 보험시장 판매채널과 고객은 논의의 초점이 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은 중소기업 보험 판매채널에 관한 자료와 정보의 집적을 제약한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서 본 연구는 중소기업 판매채널 연구의 기초가 되는 자료도 설문조사를 통해 확보하고자 했다.

42) 중소기업 일반보험 영업전략은 보통 개인영업 사업 부문에서 보험설계사 및 전속대리점, 독립대리점(GA)에 대한 채널전략의 한 구성 요소임. 다만, 이 경우에 개인영업 사업 부문은 장기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대한 마케팅전략이 초점임

43) 손해보험회사 임직원 채널이 중소기업 보험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는 업종별 공제조합이나 협회 등을 통한 단체계약인 경우로 한정됨



### 3. 해외 중소기업 시장 현황과 이슈

#### 가. 해외 중소기업 시장 규모 조사 사례

보험시장이 발달한 주요국에서 중소기업 시장 비중은 기업성 보험 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McKinsey & Company(2016, 2020, 2022)의 선행 연구에 따르면, <표 II-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 영국, 독일에서 중소기업 보험시장은 기업성 보험시장에서 6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해외 주요국의 중소기업 비중은 국내 추정치인 22.3~34.2%<sup>44)</sup>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해외 사례 비교는 국내 손해보험산업 내 일반손해보험의 낮은 비중의 한 원인이 중소기업 보험시장의 미발전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II-22> 주요국 중소기업 보험시장 조사 사례

구분	내용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성 보험시장의 60%</li> <li>소기업 103bil 달러</li> <li>중기업 88bil 달러</li> </ul>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성 보험시장의 60% 초과</li> </ul>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성 보험시장의 60~65%</li> </ul>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기업 시장 규모 24억 호주 달러(약 16억 달러)</li> <li>* 소기업의 연간보험료 2.1만 호주 달러(약 1.4만 달러)</li> </ul>

자료: McKinsey & Company(2016, 2020, 2022); 최창희·장윤미(2021)

#### 나. 해외 중소기업의 보장 공백 조사 사례

해외 주요 보험 선진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기업성 보험시장이 발전해 있고, 보험가입률도 국내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어느 나라든 보편적인 현상 중 하나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보험가입률이 낮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성 보험시장에서 중소기업의 높은 비중이 시사하듯 국내에 비해 해외 중소기

44) 22.3%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단체상해보험 제외 기준임

업들의 보장 공백은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다. 우리나라 보장 공백의 대표적인 사례인 기업휴지보험 가입률 조사 사례를 살펴보면 그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미국의 경우 중소기업의 30~40%가 기업휴지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나아가 미국 손해보험산업은 중소기업의 사업연속성 계획 수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의 31%가 기업휴지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sup>45)</sup>

〈표 II-23〉 미국 및 일본의 기업휴지보험가입 현황

구분	내용
미국	중소기업의 30~40%가 기업휴지보험가입 * 미국 손해보험산업은 비영리연구소를 통해 사업연속성 계획 수립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중소기업의 사업연속성 계획 수립을 지원
일본	중소기업의 31%가 기업휴지보험가입

자료: NAIC website; 한상용·홍보배(2022); 澤田他(2017)

## 다. 해외 중소기업 보험가입률 및 신규 수요 조사 사례

### 1) 일본 중소기업 리스크 인식 및 대응 실태

일본 손해보험협회는 2021년부터 중소기업의 리스크 대응 현황 파악과 손해보험산업의 대응 역량 제고(상품개발능력 제고 및 시장 니즈 파악)를 목적으로 매년 정기적 조사를 하고 있다.<sup>46)</sup> 이 조사는 인터넷을 통해 매년 1천 개의 표본조사를 한다. 설문조사 항목은 중소기업 리스크 인식, 리스크관리 및 손해보험가입 현황, 손해보험 미가입 원인, 향후 보험 수요, 보험가입 시 정보원 및 선택기준 등이다. 〈표 II-24〉는 일본 손해보험협회의 정기 설문조사 개요를 보여준다.

45) 日本損害保險協會(2022)는 14.3%의 가입률을 제시하고 있고, 澤田他(2017)(한상용·홍보배 2022)에서 재인용 함)는 31%를 제시함

46) 日本損害保險協會(2022)

〈표 II-24〉 일본 중소기업의 리스크 의식·대책 실태 조사 개요

구분	내용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본 중소기업</li> <li>제조업, 서비스업, 도매업, 소매업, 건설업 등 업종별</li> </ul>
표본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31</li> </ul>
조사 주기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년 수행, 시계열 분석도 시행</li> <li>인터넷 조사</li> </ul>
주요 조사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기업 리스크 인식 상황</li> <li>중소기업의 리스크관리와 보험가입 현황</li> <li>중소기업 손해보험 미가입 원인</li> <li>중소기업의 향후 보험 수요</li> <li>중소기업 보험가입 정보원 및 손해보험 선택 기준</li> </ul>
수행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본 손해보험협회</li> </ul>

자료: 日本損害保險協會(2022)

일본 중소기업의 사업리스크 순위는 자연재해, 고객 및 거래상대방 폐업·파산에 따른 매출 감소, 감염병, 근무 중·이동 중 손해배상, 경제환경 리스크, 정보 유출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업리스크 대응 방법은 손해보험가입 54.3%, 공제 가입 15.9%로 나타났고, 저축을 통한 대응이 22.1%였다.

〈표 II-25〉 일본 중소기업의 사업리스크 및 대응

(단위: %)

구분	비중	
사업리스크 순위	자연재해	51.8
	고객 및 거래상대방 폐업·파산에 따른 매출 감소	41.8
	감염병	38.4
	근무 중·이동 중 손해배상	34.4
	경제환경 리스크	28.3
	정보 유출	23.2
사업리스크 대응 방법	손해보험가입	54.3
	대응 없음	27.5
	저축	22.1
	보조금 등 활용	20.5
	공제	15.9

자료: 日本損害保險協會(2022)

일본 중소기업의 기업성 보험가입률은 총가입률이 75.6%로 나타났다. 보험종목별로 보면, 화재보험 66.8%, 상해보험 39.4%, 지진특약 37.6%, 노동재해종합보험 23.2%, 기업휴지보험 14.3%, 동산종합보험 14.0%, 시설물배상책임보험 13.2% 등으로 나타났다.

〈표 II-26〉 일본 중소기업 기업보험 가입률

(단위: %)

구분	비중	구분	비중
총가입률	75.6	동산종합보험	14.0
화재보험	66.8	시설물배상책임보험	13.2
상해보험	39.4	생산물배상책임보험	11.6
지진특약	37.6	D&O보험	7.5
노동재해종합보험	23.2	정보누출배상책임보험	5.2
기업휴지보험	14.3	사이버보험	4.7

자료: 日本損害保險協會(2022)

일본 중소기업들의 보험 미가입 이유는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낮아서 32.8%, 비용부담 29.3%, 보험료 대신 다른 용도 사용 19.0%, 관련 리스크 인식 부재 20.5%, 보험상품 인식 부재 14.9%였다.

일본 중소기업이 향후 보험으로 대응하고 싶은 리스크를 살펴보면, 일본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자연재해가 42.6%로 1위였다. 2위는 고객 및 거래상대방 폐업·파산에 따른 매출감소, 3위는 감염병, 4위는 근무 중·이동 중 손해배상, 5위는 경제환경 리스크였다.

중소기업의 향후 보험 수요를 살펴보면, 보험 추가 가입 의향은 42.7%로 나타났다. 이중 기업휴지보험이 가장 높은 25.5%였다. 사이버 보험도 25%로 높은 가입 의향을 보였다. 또한, 상해보험, 신용보험,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 임원배상책임보험, 노동재해보험이 20%를 넘는 가입 의향을 보였다.

〈표 II-27〉 일본 중소기업 향후 보험가입 수요

(단위: %)

구분	비중	구분	비중
총가입 의향률	42.7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	23.1
휴업보상보험	25.5	D&O보험	22.4
사이버보험	25.0	노동재해보험	22.0
상해보험	23.3	시설물배상책임보험	17.0
신용보험	23.2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15.9
지진특약	23.1		

자료: 日本損害保險協會(2022)

## 2) 해외 주요국의 중소기업 보험 니즈 변화 조사 사례

Deloitte(2022)는 중소기업의 보험 수요 변화에 관한 글로벌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정규직 5~75명을 가진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정의했고, 14개국 5,300개 기업 대상 설문조사였다. 설문조사 대상 국가는 미국,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벨기에,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중국, 일본, 호주 등이다.

이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중소기업의 보험에 대한 태도와 행동이 변화하고 있는데, 26%의 중소기업이 가까운 미래에 기업성 보험에 더 많은 지출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성 보험가입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는 팬데믹으로 인해 기업이 경험한 미래 손실을 피하려는 욕구(50%), 재무 취약성(46%), 기업이 직면한 위험에 대한 인식 증가(39%) 등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가입하지 않은 보험 중 추가 가입 의향이 있는 보험은 팬데믹보험(27%), 사이버보험(25%), 기업휴지보험(24%)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3년 이내에 중소기업이 자신의 보험포트폴리오에 추가할 의향이 있는 보험은 기업휴지보험(21%), 재택 근무 보험(20%), 업무 재산 보험(19%)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국제 비교는 국가별로 중소기업 변화 동향이 상이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국가별로는 미국은 사이버보험에 관한 가입 의향(21%)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반면, 중국은 제조물배상책임보험(24%)과 신용보험(23%)의 가입 의향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신규 보험가입 수요 측면에서 중국이 가장 높았고, 일본, 호주, 아일랜드, 캐나다,

미국, 프랑스, 영국 등이 다음 순서였다.

이 조사는 보험가입 및 거래 행태의 변화도 추적하고 있다. 일부 국가의 중소기업은 기업성 보험가입을 위한 정보 조사 및 가입 채널의 변경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의 경우 17%, 스위스·스웨덴의 경우 20%의 기업이 보험중개사(브로커) 사용을 중단하고, 자체 조사를 하겠다고 응답했다.

McKinsey & Company(2022)도 독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보험시장의 변화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중기업은 7%만이 보장 공백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소기업은 1/3이 보장 공백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중소기업 시장잠재력이 주로 소기업에 있음을 보여준다. 맥킨지는 소기업 보장 공백에 따른 시장잠재력을 20억 유로로 추정했다.

또한, 중소기업 고객군을 기업성 보험 관련 기대와 선호를 기준으로 5개로 구분하여 보험 거래에 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수행하였다. 중소기업군을 온라인 리서치 선호(25%), 맞춤형 기업보험 자문 선호(22%), 저렴한 가격 선호(19%), 보험중개사(브로커) 없는 보험회사 직거래 선호(18%),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하는 보험회사 선호(16%)로 구분했다.

보험회사 교체 행동 유형에 관해서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4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했다. 여기서 충성 고객군은 59%이지만, 이 고객군도 높은 만족도에 따른 충성고객군 35%, 교체의 불편함에 따른 충성고객군 24%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마찬가지로 교체 의향 고객군 41%도 교체 실행 고객군 21%와 교체 의향이 있지만 교체 미실행 고객군 20%로 세분한다.

이러한 조사 사례들은 주요 국가들에서 중소기업 기업성 보험시장에 대해 정기적인 가입 현황, 신규 수요 조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들 중 일부는 중소기업 보험 거래 행태와 그 변화 추세에 대한 분석과 이를 토대로 한 보험회사의 중소기업 시장 접근 전략까지 제시하고 있다.